

## ‘매트릭스’를 읽으면 우리 주변의 매트릭스가 보인다

1999년 부활절 주말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매트릭스>는 여느 훌륭한 예술작품들처럼 다양한 문제제기의 원천이 되었다. 이 영화를 조명하고 흥미한 책들이 쏟아져 나올 만했다.

2003년에 <매트릭스>를 다룬 책이 세 권이나 출간되었다.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다》(굿모닝미디어), 《매트릭스로 철학하기》(한문화), 《철학으로 매트릭스 읽기》(이룸)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저서가 아니라 여러 명의 글을 모은 공저 또는 편저라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매트릭스>는 철학, 종교, 문학, 과학 등 서로 다른 관점에서 곱씹어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작품인 것이다.

미국 칼럼니스트인 글렌 예페스가 엮은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다》에는 경제학 영문학 언론학 철학 종교학 등의 교수와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글이 14편 수록되어 있다.

영화에서 키아누 리브스는 낮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살아가면서 밤이면 인터넷 속의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해커 네오를 연기한다. 네오가 처음 접한 여자인 트리니티, 세례자 요한 역할의 모피어스, 궁극적 진실의 계시자인 오라클, 유다를 연상시키는 사이퍼 등이 나오는 영화의 무대는 2199년 인공지능 기계와 인류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구이다.

이 영화에서 미래의 지구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마침내 인공지능 컴퓨터들은 인류를 정복하여 인간을 자신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노예로 삼는다. 땅속 깊이에서 인간들은 매트릭스 컴퓨터들의 배터리로 사육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오로지 기계에 의해서, 기계를 위해서 태어나고 생명이 유지되고 이용된다(22쪽). 매트릭스는 컴퓨터가 창조한 가상현실이다. “매트릭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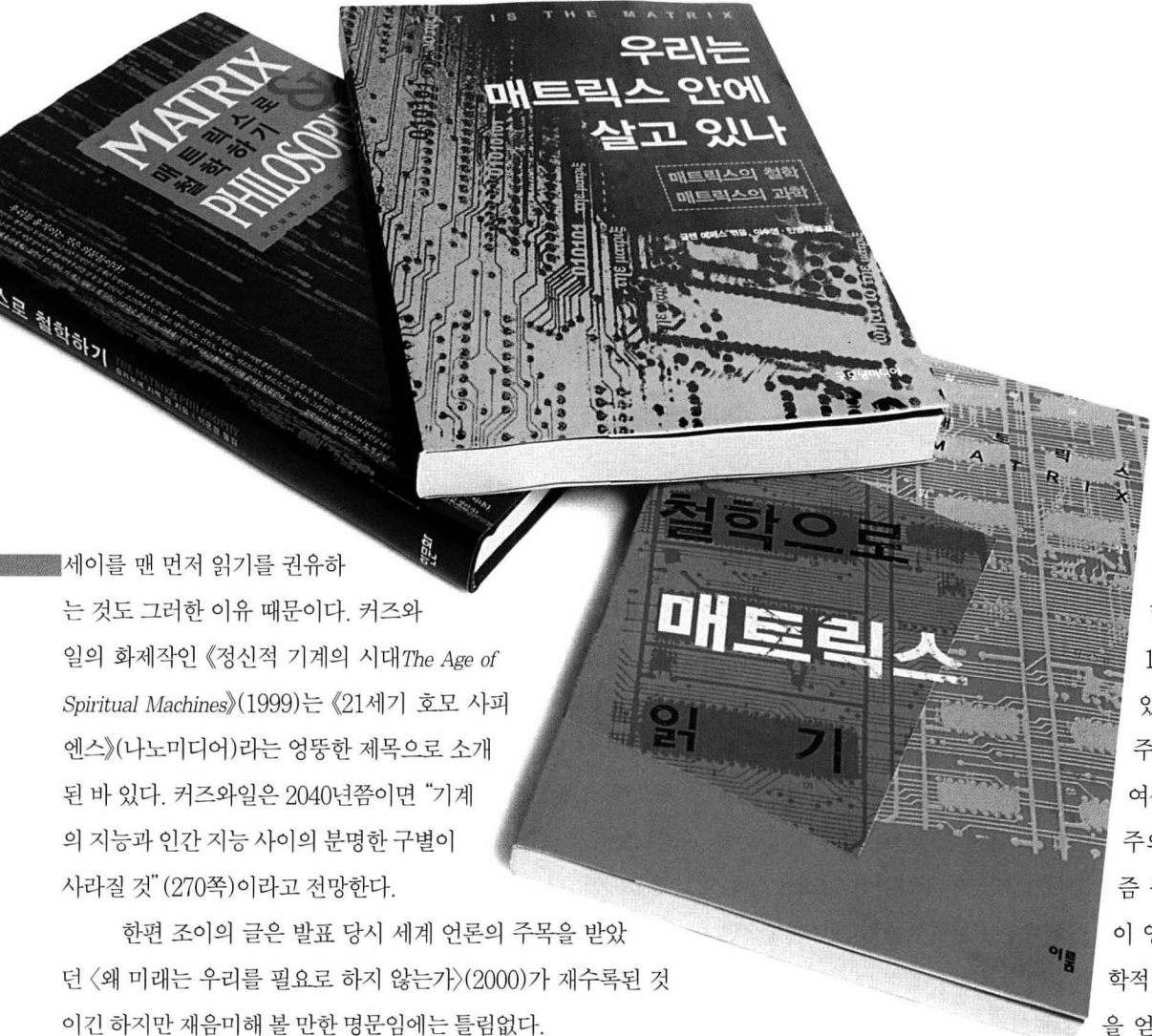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우리는 우리 개인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어떤 힘의 노예이며, 포로들을 유순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 기계들이 창조해 낸 인공적 현실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들의 집단적 환영이 바로 매트릭스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매트릭스는 테크놀로지 사회의 완전한 실현단계라고 할 수 있다”(30쪽). 매트릭스 컴퓨터들은 거대한 발전소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인간 노예들을 어르고 달래어 그들로부터 최대한의 에너지를 끌어낸다. 매트릭스 내부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인공지능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세임을 모르는 채 행복하게 사는 반면, 소수의 개인들은 매트릭스가 조작해 내는 디지털 환상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들은 매트릭스라는 압제의 토대를 잠식하는 저항세력을 구성한다. 그 결과 그들은 컴퓨터의 제거 대상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된다. 태어날 때부터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온 네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환상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채 살아간다. 그러나 네오는 모피어스와 저항대원들의 도움으로 매트릭스의 가상 세계로부터 탈출한다. 결국 네오는 매트릭스 요원들의 총알세례를 받고 죽지만, 트리니티가 키스하자 약 3초 만에 부활한다. “네오는 말하자면 방탄조끼를 입은 그리스도와 같다”(20쪽).

영화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매트릭스의 목적은 인간을 기계를 위한 배터리로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매트릭스>에 언급된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영화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에 실린 14편의 글 중에서 컴퓨터 이론가인 레이 커즈와일(255~271쪽)과 빌 조이(273~319쪽)의 에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다》 글렌 에페스 엮음 | 이수영·민병직 옮김 | 굿모닝미디어 | 350쪽 | 값 12,000원

《매트릭스로 철학하기》 슬라보예 지젝 외 지음 | 이운경 옮김 | 한문화 | 342쪽 | 값 15,000원

《철학으로 매트릭스 읽기》 이정우 외 지음 | 이룸 | 220쪽 | 값 8,900원



세이를 맨 먼저 읽기를 권유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커즈와일의 화제적인 《정신적 기계의 시대 *The Age of Spiritual Machines*》(1999)는 《21세기 호모 사피엔스》(나노미디어)라는 엉뚱한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커즈와일은 2040년쯤이면 “기계의 지능과 인간 지능 사이의 분명한 구별이 사라질 것” (270쪽)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조이의 글은 발표 당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왜 미래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2000)가 재수록된 것이긴 하지만 재음미해 볼 만한 명문임에는 틀림없다.

가상현실인 <매트릭스>를 분석한 책에서 장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 이론이 언급되지 않을 수는 없다. 더욱이 영화에서 네오가 보드리야르의 저서인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민음사)을 보는 장면이 나올 정도이니까. 또한 모피어스는 매트릭스를 빠져 나온 네오에게 “현실의 사막에 온 것을 환영하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보드리야르의 책을 직접 인용한다(101쪽). 시뮬라시옹 이론으로 <매트릭스>를 분석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인가 지적 허세인가>(99~143쪽)는 영화가 보드리야르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사상을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138쪽)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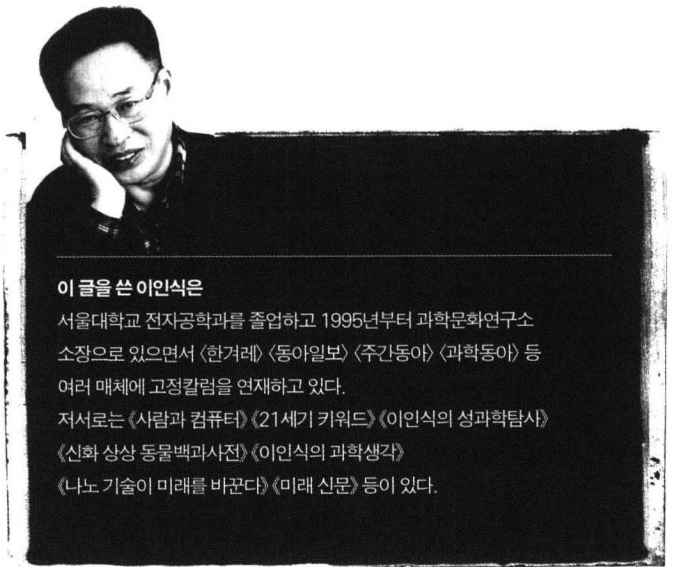
그 밖에도 이 책에는 <매트릭스>를 기독교(219~254쪽), 또는 불교(175~200쪽)의 측면에서 분석한 글이 실려 있다.

하지만 <매트릭스>에서 제기된 철학적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독자라면 《매트릭스로 철학하기》를 뒤적여 보아

야 될 것 같다. 철학자들이 집필한 15편의 글이 실려 있는 이 책은 “실존주의,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 불교, 허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틀을 가지고 이 영화를 읽으며”, 철학적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칸트, 니체, 사르트르, 셸라스, 노지크, 보드리야르, 콰인을 인용”한다(9쪽). 글의 제목만 훑어보더라도 이 책에 실린 철학적 주제가 만만치 않음을 직감할 수 있다. 이를테면 ‘네오와 소크라테스’ (24쪽), ‘매트릭스는 데카르트를 반복한다’ (43쪽), ‘네오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생활자’ (80쪽), ‘매트릭스와 사르트르의 <구토>’ (97쪽), ‘칸트가 설명하는 매트릭스 작동법’ (167쪽), ‘매트릭스, 마르크스 그리고 건전지의 생애’ (246쪽) 등등.

<매트릭스>가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불교적 세계관을 조명한 ‘순가락은 없다’ (132~146쪽) 역시 여간 흥미로운 글이 아니다. 영화에서는 승복을 입고 결과부좌로 앉아 있던 소년이 염력을 이용하여 순가락을 구부린다. 그가 네오를 향해 순가락을 들어보이자 순가락에는 네오의 영상이 비친다. 소년은 선문답 같은 말을 꺼내려 한다. “순가락을 구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해



**이 글을 쓴 이인식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과학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한겨레> <동아일보> <주간동아> <과학동아> 등 여러 매체에 고정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람과 컴퓨터> <21세기 키워드> <이인식의 성과학탐사> <신화 상상 동물백과사전> <이인식의 과학생각> <나노 기술이 미래를 비꾼다> <미래 신문> 등이 있다.

요. 대신 진실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세요. 손가락은 없어요. 그러면 구부러지는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153쪽).

우리나라 철학자들이 펴낸 <철학으로 매트릭스 읽기> 역시 “현상학, 논리학, 인식론, 미학, 정신분석학, 동양철학 등 전공자들의 시각에서 다채로운 형식과 글쓰기를 통해서 영화를 읽어내고 있다”(책머리에). 특기할 사항은 앞서의 두 책이 <매트릭스> 1편에 대한 것인데 비해 이 책은 2편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5월 선보인 <매트릭스 2-리로드>는 1편 못지않게 각종 흥행기록을 갈아치움과 동시에 출판, 패션, 게임 등 다양한 문화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이정우(15~36쪽)는 공상과학영화를 철학적으로 분석한 <기술과 운명>(한길사)을 펴낸 안목으로 “전체적으로 2편은 <매트릭스>의 속편이 아니라 다른 어떤 평범한 영화, 서양 사람들이 흥공액션영화를 지루하게 흥내내는 블록버스터라는 느낌을 준다”고 혹평하고 “2편의 허점들을 보완하면서 3편을 만들어 시리즈 전체를 멋지게 마무리하기를 바랄 뿐이다”(25쪽)고 기대감을 나타낸다. 이정우가 <매트릭스>와 운명의 문제에 철학적으로 접근한 반면에 김시천(69~98쪽)은 <장자>의 <응제왕>에 나오는 혼돈의 죽음을 통해 <매트릭스>의 의미를 천착한다. 세 권의 책에 실린 36편의 에세이 중에서 매트릭스를 도둑과 연결시킨 유일한 글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광제(163~194쪽) 역시 독창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뒤질 바 없다. 글의 제목인 “반-매트릭스에서 반-매트릭스”로 가 벌써 읽는 이들을 긴장시키고 있지 않은가.

<매트릭스> 시리즈는 2003년 11월 전 세계적으로 동시 개

봉된 <매트릭스 3-리볼루션>으로 종결된다. 네오는 빛속에서 스미스와 최후의 대결을 벌인다. 그 결과가 궁금하면 얼른 비디오 가게로 달려가 볼 일이다.

모피어스는 네오와의 첫 만남에서 매트릭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매트릭스는 사방에 있네. 우리를 전부 둘러싸고 있지. 심지어 지금 이 방 안에서도. 창문을 통해서나 TV에서도 볼 수 있지. 일하러 갈 때나 교회 갈 때, 세금을 내러 갈 때도 느낄 수가 있어.”

그렇다. <매트릭스>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테크놀로지 사회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했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든, 테크놀로지는 이미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 모피어스의 말이 실감나지 않는 독자에게는 <뉴미디어의 철학>(민음사)과 <미래신문>(김영사)의 일독을 권유하고 싶다. **이인**